

서준혁, 14년 숙원 항공업 진출 이뤄지나... 기업결합 지연

(대명소노 회장)

대명소노, 항공업 공정위 승인 연기
“기업결합 승인 이달 나올 가능성 ↑”
티웨이항공 내달 23일 ‘임시주총’

서준혁 대명소노 회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항공업 본격 진출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대명소노측과 최근 지분 인수를 통해 2대주주가 된 티웨이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경쟁당국의 승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티웨이항공 정기 주주총회는 정홍근 사내이사(대표이사)와 김형이 사내이사, 최성용 사외이사 등 이사 3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정 대표는 대표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반면 대명소노측 이사 후보였던 서준혁 회장, 이광수 소노인터내셔널 홀딩스 부문 대표이사 등의 선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티웨이항공 항공훈련센터에서 티웨이항공 정기주주총회가 진행됐다. /뉴시스

임 안건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로 자동 폐기됐다.

대명소노그룹 측 이사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 이유는 주총 전까지 공정거래위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명소노는 정기 주총 전까지 공정위의 기업결합승인까지 마치고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주총에서 이사회를 원하는 대로 구성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부터 소노인터내셔널과 티웨이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했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업계 예상과 달리 승인 결정 대신 보완서류를 요구했고, 대명소노측은 추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명소노는 이미 에어프레미아의 2대주주여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에서는 에어프레미아의 보유 항공기가 현재 6대에 불과해 LCC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달 중 승인이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승인이 완료될 경우 서준혁 회장의 숙원사업이었던 항공업 진출이 14년 만에 이뤄진다. 서 회장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난 2011년 티웨이항공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매각 측에서 원하는

가격과 서 회장의 눈높이가 달라 최종 인수에 실패했다. 지난해 예림당이 티웨이항공 2대 주주였던 JKL파트너스의 지분을 되살 기회를 포기하면서 서 회장은 JKL파트너스 지분을 인수하고 티웨이항공 2대 주주에 올랐다.

대명소노 측은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오는 5월 23일 티웨이항공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재진입을 시도해 이사회를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업계관계자는 “공정위 승인이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서준혁 회장의 숙원사업 달성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티웨이항공 인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에어프레미아 인수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명소노 관계자는 “공정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전날 폐기된 안건을 재상정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포스코청암재단이 2일 포스코센터에서 제19회 2025년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장인화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 박문정 포스텍 교수, 김진동 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이사, 전용석 포항명도학교 교장, 이철용 사단법인 캠프 대표, 추혜인 살림의원 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청암상에 김진동 대표 등 5명 선정

포스코청암재단, 4개 부문 시상식

포스코청암재단이 포스코센터에서 2025년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교육·봉사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을 발굴·지원한다는 취지다.

2일 포스코청암재단에 따르면 올해 청암상 수상자는 ▲기술상 김진동 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 ▲과학상 박문정 포스텍 화학과 교수 ▲교육상 포항명도 학교 ▲봉사상 공동수상에 이철용 사단법인 캠프 대표, 추혜인 살림의원 원장 등 총 5명이다.

포스코청암상은 박태준 포스코 명예 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6년에 제정됐다. 포스코 창업이념인 창의존중·인재중시·봉사정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년간 총 68

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상금은 각 부문별로 2억원이다.

기술상 수상자인 김진동 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는 초고순도 화합물 TMA(트리메틸알루미늄)의 국산화에 이어 유기금속화합물 제조 플랜트 설계 기술도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했다. 레이크머티리얼즈는 고부가가치 유기금속 화학소재 전문기업으로, TMA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 배터리, 이차전지 소재, 반도체, LED, 태양광,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 기술력을 공급하고 있다.

장인화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청암상을 통해 과학·기술·교육·봉사 부문에서 탁월한 공헌을 하신 분들을 발굴해 나감으로써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도전하는 문화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벤처기업 인도 우수 SW 개발자 채용 돕는다

중기부, 오늘부터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부터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을 모집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공과대학(IIT) 출신을 비롯한 우수 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채용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벤처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내달 1일부터는 인도 SW 개발자를 인도 현지에서 모집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재 매칭에 나선다. /김승호 기자

벤처기업 2곳 중 1곳, 상법 개정안 ‘반대’

벤처기업협회, 169개사 조사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55% 부정적
벤처기업들, 법적 리스크 증가 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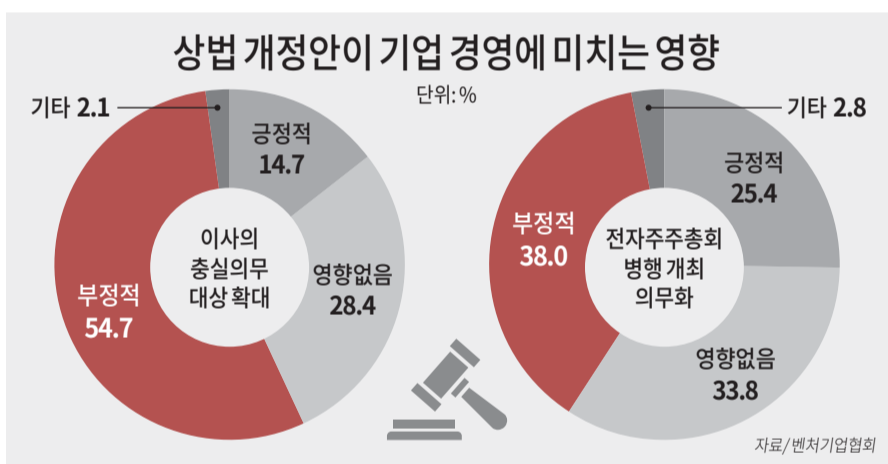
벤처기업 2곳 중 1곳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벤처기업협회가 2일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벤처기업의 절반이 넘는 54.7%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답변은 14.7%였고, 28.4%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선 38%가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긍정적’은 25.4%, ‘영향없음’은 33.8%였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빼



대로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벤처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 다양한 우려들을 제시했다.

상장기업인 전자장비업체 D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 성과에 직결되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이번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략적 투자가 위축되고

사업 전반이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벤처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현재 복합적인 경영 환경에 놓인 벤처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면서 자본 유치, 인수합병, R&D 투자 등 주요 기업 활동이 위축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69개사가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초대형 특수변압기’ 시장 공략 확대

HD현대일렉, 美 풍력발전단지 공급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최대 용량의 위상조정변압기(PS T) 제작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초대형 특수변압기 시장 공략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230kV(킬로볼트)급 653MVA(메가볼트암페어) 위상조정변압기의 최종 승인시험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 초대형 특수변압기는 미국 최대의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인 인베너지가

미국 주에 건설 중인 풍력발전단지에 오는 8월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통상 위상조정변압기는 300MVA급 이상을 초대형으로 분류한다. 이번에 HD현대일렉트릭이 제작한 653MVA 변압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위상조정 변압기 가운데 용량과 크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위상조정변압기는 전력망 간 송전시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특수변압기 중 하나다. 전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지원해 전력시스템 전반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이 장점

이다.

또한 위상조정변압기는 전압체계가 다른 국가 간 전력을 교환하거나, 직류 기반의 재생에너지원을 기존 교류 기반의 전력망에 연결할 때 전력 사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위상조정변압기를 비롯한 특수변압기는 전기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돕는 핵심기기로 주목받으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특수변압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 25억달러에서 오는 2033년 4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현정 기자